

무보, K콘텐츠·뷰티 수출금융 확대 CJ ENM·콜마 美법인 1.25억弗 지원

중후장대 수출금융, K컬처로 확대
콘텐츠·뷰티 기업 북미 공략 지원
CJ ENM USA에 1억弗 운전자금
피프스시즌 콘텐츠 제작 확대 기대
한국콜마 美법인엔 2500만弗 투입

그동안 대형 플랜트나 선박, 자동차 등 이른바 '중후장대'형 전통 제조업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부 차원의 중장기 수출금융이 K-콘텐츠와 K-뷰티 등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그 영역을 본격 확장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K-컬처를 선도하는 우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 두 곳의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북미 시장 영토 확장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보의 금융 생태계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플랜트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중장기 금융지원이 콘텐츠·뷰티 등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CJ ENM USA에 1억달러… K-콘텐츠 글로벌 공략 가속화

먼저 무보는 글로벌 IP(지식재산권) 파워하우스로 평가받는 씨제이엔엠(CJ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ENM)의 미국 현지법인인 'CJENM USA'에 1억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CJ ENM USA는 전 세계 대중문화의 본산인 미국 현지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유통하는 글로벌 스튜디오 '피프스시즌(FIFTH SEASON)'의 모회사다.

CJ ENM USA는 드라마·영화·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며 K-콘텐츠의 북미 시장 안착을 이끌어온 기업으로, 이번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의 든든한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프로젝트

제작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한국콜마 美 법인에 2500만달러… K-뷰티 현지 경쟁력 강화

이와 함께 무보는 글로벌 화장품 제조 자개발생산(ODM) 분야의 선두 주자인 한국콜마의 미국법인에도 약 2500만 달러(약 382억원)의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재 양사 간 약정된 제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콜마 미국법인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중심지인 북미 대륙에서 K-뷰티 생산 기반의 글로벌 확대와 북미 사업 본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보는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콜마 고유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현지 생산 기지 안정화 등 북미 화장품 제조 허브 구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K-뷰티의 현지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K-컬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어촌공사, EU '호라이즌 유럽' 과제 선정

9개국·19개 기관 공동연구 참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유럽의 초대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선정됐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5개월간 9개국·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연구 혁신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한 뒤 기후, 에너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그리스 아테네공과대가 주관하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덴마크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연합체(컨소시엄)에 속해 있다.

참여하게 될 과제는 '프로테우스' 프로젝트다. 유럽연합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인 '코페르니쿠스'의 위성 관측 데이터와 현장 계측자료,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해 환경정보를 스스로 해석하고 예측하는 '환경지능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코페르니쿠스 기반 환경지능시스템'을 농업용수 분야에 적용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성 관측 데이터와 지상 계측 데이터를 통합 활용해, 가뭄 시 농경지 물 부족과 작물 스트레스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용수공급 의사결정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 괴산의 백마저수지를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한다. 백마저수지는 공사가 운영하는 표준시험구역으로 수위계, 유속계, 토양수분계 등 물순환 전 과정을 정량화할 수 있는 정밀 계측망이 갖춰져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항만개발 영향, 해안선 12년새 308km 늘어”

해수부, 2차 해안선 변화조사 결과

항만·연안의 지속적 개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안선 길이가 12년 사이 총 300km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6일 총 해안선 길이 등이 포함된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2021~2025)'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와 관련해 처음 공표할 당시인 2014년(2001~2013년) 기준으로 전체 해안선 길이는 1만4962.8km였다. 이번 조사 결과 해안선은 1만5270.4km로 307.6km 늘어났다.

반면 자연해안선의 비중은 줄었다. 2014년 당시 자연해안선 비중은 66.0%였으나 올해 조사에서 62.6%로 311.9km 감소했

다. 또 같은 기간 인공해안선의 비율은 34.0%에서 37.4%로 619.5km 증가했다.

인공해안선 비중의 증가는 항만·아항 개발, 방파제 설치, 연안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침식 및 퇴적 등 자연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조사원은 이번 통계가 단순히 길이의 변화를 넘어 국내 연안개발 추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유형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성신 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부당지원 심의

공정위, 계열 대부업체 저리지원 혐의
심사관, 217억 부당이익 제공 판단
최대 350억 과징금·검찰 고발 가능

숯불돼지갈비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저리로 자금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는다.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35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

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신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조달해 이들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마이너스 통장 방식)로 자금을 빌려줬고,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당시 신생 업체였던 14개 대부업체는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의 신용을 바탕으로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손쉽게 확보했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총 217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이 이 같은 자금 대여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재 수위, 특히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개정 전 과징금 고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부당지원행위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지원금액의 120~160%에 달한다. 심사관이 산정한 지원 금액인 217억 원에 최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은 약 347억 원 수준에 이른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푸드 신시장 개척 온라인 상담회

17일까지 농식품 수출기업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마련했다.

상담회 신청 기한은 이달 17일이며, 참가 대상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희망하는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다.

기업이 수출 희망 국가와 품목을 신청하면, aT는 해외지사 네트워크 및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굴한 해외 바이어와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1:1 상담 기회와 함께 전문 통역 등을 지원한다. 해당 상담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8주간 예정돼 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의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등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모집공고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온

라인 상담회는 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리 기업이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권역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4분기, 국내 최대 농식품 수출 상담회인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4일부터 시흥간 열리는 행사에 각국 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기업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제주시 아라동에서 바라본 제주도 북쪽 해안선과 바다 너머의 추자도.

/뉴시스

국유지 버스주차장 사용료 1779만원 취소

중앙행심위, 국립대 처분에 제동
지자체, 대학 요청으로 시설 조성
대학, 관련 공문 받고도 장기 묵인

국립대학이 지방정부에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대학교가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L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7대학교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L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L지방정부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L지방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7대학교는 사용 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9월, 7대학교는 L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779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한 국유지 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